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어사 교육의 방향성 탐색

— 국어의 역사성 교육을 중심으로

신희성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국어의 역사성 교육에 대한 논의
- III.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제
- IV.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방향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교육 내 문법 영역에 속해 있다.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앎을 목표로 하는 문법 영역 중에서도 국어사 교육은 지금, 여기의 언어가 아닌 과거 어느 때의 언어를 살핀다는 점에서 다른 문법교육 내용들에 대비되는 특수성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국어사 교육은 마찬가지로 과거의 언어를 살피는 국어사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국어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언어를 살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언어를 살피는 경험이 학습자에게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고전 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인 김홍규(2002: 307)의 다음 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가 앎의 획득·확충이라는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교육 또한 태도·기능·사고력의 성장이라는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의 행동과 자기 확충 과정을 도외시킨 채 “연구의 결과를 학습자에 전달하는 데 그치는 행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전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그간 국어사 교육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원리나 방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¹⁾ 그중 최근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치는 ‘학습자가 실존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와 단절되지 않는 국어사 교육’이다. 이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이 “국어의 변천 과정” 자체보다 “국어의 역사성,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국어에 대한 이해”를 교육 내용으로 내세운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이규범, 2019: 163).

즉, 국어사 교육이 교육적 유의미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구할 방향은 과거의 언어를 살피는 일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언어의 본질적인 역동성을 체험하고 자각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언어에 대해 학습자가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치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일은 원리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²⁾

본 연구는 현재와 단절되지 않는 국어사 교육의 기치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하여 이들이 실제 교과서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내용의 한 예를 탐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국어사 교육의 원리나 방향에 대한 연구 중 비교적 최근의 것들로 예를 들면, 김유범(2013), 박형우(2014), 이동석(2014, 2019), 이승희(2015), 김규훈·김효연(2016), 양영희(2016, 2018), 허재영(2016), 최소영(2018ㄱ, 2018ㄴ) 등이 있다.

2) 실제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II. 국어의 역사성 교육에 대한 논의

I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본 연구는 앞서 이루어진 국어사 교육의 담론 중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과거의 언어를 교육 내용으로 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거리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춘다. II장에서는 그중에서도 국어의 역사성 이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살피고 국어의 역사성과 관련해 현재와 단절되지 않는 국어사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함으로써 실재를 점검하기 위한 잣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어사 교육의 개신에 대한 담론은 교육의 장면에 구성주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학습자 중심성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주세형(2005)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을 표방하면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사 교육 내용의 문제를 아래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언어 자체에 대한 국어사적 사실을 단편적인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서로 관련성 없이 나열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인 지식이 나열되고 있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지 못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만 했을 뿐이다.

둘째, 현 교육 내용으로는 ‘과거의 언어’에 대한 지식의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현재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과거의 언어’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천착할 필요가 있다.

(주세형, 2005: 333)

결국 이들은 하나로 엮일 수 있는데 국어사적 사실의 단편적인 나열이 학습자의 현재 언어적 삶에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주세형(2005)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1)

학습자의 ‘현재 언어적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2)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지식의 자기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3)

(주세형, 2005: 335)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학습자의 ‘현재 언어적 경험’과의 관련성이다. 이는 국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현재 국어의 특정 면을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다시 학습자의 언어적 경험 안으로 좁힐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학습자의 현재 언어적 경험은 곧 다시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아야 함은 곧 다시 현재와 미래의 단절 역시 지양해야 함을 함의한다. 주세형(2005: 337-343)에서 역사 교과와 논의를 참고하여 국어사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국어의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들고 이를 바탕으로 “범시적 시각”을 제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현재 언어적 경험’에는 미래의 언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국어사 교육 내에서 과거 언어와 현재 언어와의 관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학계 전반적으로 큰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김유범(2013: 87)에서는 ‘현대국어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을 중세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유의점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박형우(2014: 154) 역시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서 문법화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그중 하나로 “현대국어와의 연계성”을 들었다. 석주연(2013: 115)은 자료 중심의 국어사 교육에서 자료가 “현재와 연관되었을 때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양영희(2018)이나 최소영(2018ㄱ)에서는 국어사 교육 내용과 학습자 언어생활의 관계 맺음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양영

희(2018: 611)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국어사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를 학습자가 “‘자신들도 국어를 변화시키는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어냈다. 여기서 국어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곧 현재의 국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행위의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소영(2018 ㄱ: 216-217) 역시 ‘범시적 관점의 문법 교육’ 이론을 정립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변화의 점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국어사에 관한 단절적 인식을 극복하고, 학습자 자신이 오늘날과 내일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변화의 주체임을 더욱 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밝혔다.³⁾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이 국어의 변화 과정 자체에 대한 국어사 교육 내용을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것으로 대체한 것은 이상의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실 교육과정의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언어의 변화하는 성질, 즉 언어의 역사성 자체에 주목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바람직한 발전”,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통한 언어에 대한 감각의 정련”을 이루어 낼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주세형(2005: 333)의 지적처럼 실제 교육 내용의 구현에서 국어사적 사실의 단편적 나열을 피하지 못했고, 현재 학습자가 현재 언어생활에 가져올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1종을 대상으로 구현된 국어사 교육 내용이 현재와 단절되지 않은, 그리고 국어의 역사성 인식이라는 유의미한 국어교육적 경험을 이루어 내기에 충분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⁴⁾ 아래 III장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 결과에

3) 양영희(2018)이나 최소영(2018 ㄱ)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자체는 현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언어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학습자상을 잠재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도 국어사 교육 내용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지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I.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제

먼저 검토할 교과서 목록을 보이면 아래 <표 1>과 같다.⁵⁾ 목록과 함께 각 교과서에서 국어사 교육이 자리한 단원의 짜임새를 간략히 살필 수 있다. 국어의 역사성 성취 기준이 포함된 대단원은 주로 ‘국어 사랑 및 발전, 문법 요소, 담화 관습, 음운 변동, 한글 맞춤법’의 성취 기준들을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 중 특히 ‘국어 사랑 및 발전’의 성취 기준은 2개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국어의 역사성은 7개의 교과서에서 별도의 소단원으로 꾸려졌는데 단독으로 꾸려지지 않은 4개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국어 사랑 및 발전 성취 기준과 결합하여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총 4가지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 결과를 기술하겠다.

<표 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1종의 국어사 교육 단원

| 급성 | 가 | 국어의 어제와 오늘 | |
|----|---|------------------------------|----------------------------|
| | | 변화하는 국어 (국어의 역사성 + 국어 사랑) | 올바른 표현, 효과적인 담화 (문법 요소) |

않는다. 해당 내용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에 기반한다. ‘언어와 매체’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학습하게 되는 선택 과목이므로 선행 학습한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국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사실 자체가 심화 차원으로 교수·학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설에서는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함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5:121).

5) 이후로는 각 교과서를 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가~카> 교과서로 칭하기로 한다.

| | | | | |
|-------|---|-----------------------------------|--|-------------------------------|
| 동아 | 나 | 국어의 변천과 발전 | | |
| | | 우리 말과 글의 역사와 변화 (국어의 역사성) | 우리 말과 글의 현재, 그리고 미래 (담화 관습 + 국어 사랑) | |
| 미래엔 | 다 |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 | |
| | |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 | 국어가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담화 관습 + 국어 사랑) | |
| 비상(1) | 라 |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 | |
| | | 국어의 문법 요소 (문법 요소) |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 |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국어 사랑) |
| 비상(2) | 마 |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 | |
| | |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 + 국어 사랑) |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담화 관습) | |
| 신사고 | 바 | 국어의 어제와 오늘 | | |
| | | 국어의 변천과 발전 (국어의 역사성 + 국어 사랑) |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담화 관습) | |
| 지학사 | 사 | 국어의 규범과 변화 | | |
| | |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음운 변동 + 한글 맞춤법) | 국어의 역사성 (국어의 역사성) | |
| 창비 | 아 |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 | |
| | |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 |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문법 요소) | 바람직한 국어 생활 (담화 관습 + 국어 사랑) |
| 천재(1) | 자 | 국어의 어제와 오늘 | | |
| | | 국어의 변화와 발전 (국어의 역사성 + 국어 사랑) |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문법 요소) | |
| 천재(2) | 차 | 국어의 변화와 발전 | | |
| | |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 | 국어의 위상과 발전 (국어 사랑) | |
| 해냄 | 카 | 국어와 올바른 언어생활 | | |
| | |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 |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 | |

1)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교과서의 실현을 통어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국04 - 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10국04-01] 이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한글 창제 후의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교육부, 2015:64)

먼저 교육과정 문서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에서 국어사 교육은 ‘국어의 변화(변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통해 ‘국어의 변화하는 실체이다’라는 성질, 즉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먼저 각 교과서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성취 기준을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보이는 탓에 이들만으로 각 교과서들이 설정하고 있는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필요성이나 목표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아래 <표 2>와 같이 단위 도입부에 진술된 단원의 길잡이 부분도 함께 살펴기로 한다.

〈표 2〉 국어의 역사성 단원의 도입 및 학습 목표

| 교 과 서 | 단원 도입 |
|-------------|---|
| | 학습 목표 |
| 가 |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앎과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앎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 대한 앎과 사랑 역시 그러하다. 국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오늘날 국어의 문법을 살피는 것은 국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고 깊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러한 앎은 더 나아가 국어를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마음의 바탕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국어が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알고 한국어의 발전 방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
| 나 | 국어는 여느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국어는 여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소중한 국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어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말 문화를 지속해서 성찰하고, 국어를 사랑하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
|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탐구한다.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한다. |
| 다 | - |
| | 자료를 탐구하며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한다.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한다. |
| 라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쓸 때 항상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는 우리의 생활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사고를 반영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7단원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문법 요소를 이해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국어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국어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또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확인하고, 우리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국어를 폭넓게 이해하고, 국어 발전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 보자. |
| |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여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한다. |
| 마 | 우리의 말과 글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말과 글은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한편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담화 관습을 형성해 왔다. 사회 변화에 따라 담화 관습도 끊임없이 변화를 겪기 때문에,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담화 관습을 반성하는 태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 | |
|---|---|
| 바 |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우리는 이러한 국어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계승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고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한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 사 | 국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해 가는가? 〈종략〉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도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국어에도 말소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다양한 현상이나, 복잡하고 체계적인 표기 원칙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야구가 변해 온 것처럼 오늘날 국어의 모습 역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해 온 결과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어의 현상과 규칙, 역사를 알면 우리 국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
| |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
| 아 |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국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
| | 국어 자료를 살펴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여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한다. |
| 자 | 옛사람들이 쓰던 말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옛사람들은 김치를 ‘딤체’라고 불렀고, 산과 강을 각각 ‘뽕’과 ‘가람’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우리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
| |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안다.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 차 | 언어는 살아 있다.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문물이 생겨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언어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한다.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국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운, 표기, 어휘, 문법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국어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가능해 보면, 우리 국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국어를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방향도 찾아볼 수 있다. |
| | 이 단원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국어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국어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고 지금은 어떠한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지, 세계 속 위상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라는 점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본다. |
| 카 |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한다. 국어 자료를 보고 국어의 음운, 표기, 어휘, 문법상의 변화를 파악한다. |
| | 국어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으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국어 자료와 오늘날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는 것과 더불어 국어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며 국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

먼저 이상의 내용을 살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과서마다 국어사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지향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크게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국어사 교육의 단원을 국어의 역사성 성취 기준에 더해 국어 사랑 및 발전 성취 기준과 엮어서 꾸린 교과서들이다. <가, 나, 라, 마, 바, 자, 차> 교과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라, 차> 교과서는 국어 사랑에 대한 언급은 없고 국어의 발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의 역사성 성취 기준에 대해 “이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라고 해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어 활동을 하는 ‘어떤’ 자세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교육부, 2015:64). 특히나 이때 ‘자세’라는 용어는 주로 정의적 영역과 결부되어 다루어지는바, 교과서 개발자들이 그 자세를 국어 사랑으로 해석한 데에는 나름의 개연성이 있다.⁶⁾

반면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국어 사랑 및 발전과 관련하여 결부시키지 않은 <다, 사, 아, 카> 교과서들은 대체로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 교과서의 경우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탐구하고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한다.’라고 하여 국어의 역사성 이해가 바람직한 국어 생활에 연결되고 있다. <사> 교과서는 “이러한 국어의 현상과 규칙, 역사를 알면 우리 국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국어의 역사에 대한 앎이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됨을 전제한다. <카> 교과서 역시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어필하고 있다.

6) 여기에는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교과서 개발자들은 이전 교과서를 참고하게 되는데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국어사 지식에 대한 이해와 국어를 사랑하는 자세의 함양이 하나의 성취 기준에 묶여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분리가 되었고 그 외중에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사랑 및 발전을 교수·학습할 때 다른 성취 기준과 연계할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분리되었던 이들 성취 기준이 다시 긴밀하게 결합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 교과서는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국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국어의 올바른 이해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때의 국어는 곧 현대 국어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들은 국어 사랑 및 발전에 비해 오히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국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비교적 그 당위가 명료한 데에 비해 ‘국어 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는 명제에서 국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가 분명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함으로써 국어 생활에 직접적인 관여가 생기는 지점을 이어지는 교육 내용에서 잘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가 다음 단계를 위한 비계로 작용하고 있는가?

어쨌든 위의 교과서들은 과거의 언어를 아는 것이 현재의 삶에서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거나 바른 국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⁷⁾ 하지만 이를 실제로써 보이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11종 모두에서는 국어사 교육을 다루는 단원의 주요 교육 내용을 『훈민정음』 어저서문을 자료로 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것으로 꾸리고 있다. 다수 교과서들의 발문은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의 표기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을 말해 보자’ 등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의 끝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확인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앞서

7) 여기서 ‘바른’, ‘바람직한’의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내세웠던 국어 사랑이나 국어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직결되지 않는 것이다. 국어 사랑 및 발전이나 바람직한 국어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중세 국어 및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본 학습 경험과 연결되지 못한 채로 ‘응용, 적용’ 등의 명칭을 달고서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또 무엇보다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를 통해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A와 B가 다르다는 사실이 반드시 A가 B로 변한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이 그 거리감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내세워지고 있는데 이처럼 단순히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갈무리되는 학습 활동은 그러한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문제는 자료 선정의 제한에서도 비롯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모든 교과서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보이는 데 있어 중세 국어 자료로 『훈민정음』의 ‘어저서문’을 활용하고 있다.⁹⁾ 따라서 어제 서문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만이 교수·학습되는데 여기에는 객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 선언말 어미가 존재했다는 사실 등 중세 국어의 주요한 특징들이 상당수 빠져 있다.¹⁰⁾ 또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한

8) 학습 활동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로 이루어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연결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9)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교육부, 2015: 64)라고 기술한 것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문제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중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가 있지 않다. 그보다는 교수·학습 실체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체에 대해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영희(2018: 611-614)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성취기준의 표면상 준수와 취지에 대한 준수를 구별해야 한다는 기술이 본 연구의 문제제기를 잘 설명해 준다.

10) 몇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주요 사실들을 탈맥락적으로 낱개 등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는 객체 높임을 표현하는 -습 -/-습 -/-습이 있었다”와 같이 짤막한 문장만으로도만 나열된 이러한 교육 내용이 유의미하게 학습될 것으

지식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한 후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A가 B와 다른 것을 통해 국어가 변화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A가 변한 것이 B임은, 그래서 A에 대해 아는 것이 B를 잘 이해하는 것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문제는 다시 미래의 언어와의 연결로도 이어진다.

3)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교육 내용이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역사성’이란 단어의 뜻 중 하나로 “언어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특성.”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변화하는’이라는 말은 역사성의 개념을 규정하는 핵심인데 ‘변화’와 ‘하는’으로 나누어 함의를 살필 수 있다. 먼저 ‘변화’가 ‘바뀌어 달라짐’을 뜻한다는 점에서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의 두 가지 상황이 상정된다. 다음으로 변화의 과정이 ‘변화했던’이나 ‘변화한’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과거로 기술되지 않고 ‘변화하는’으로 기술되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상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역사성은 변화 후의 지위를 가진 현재가 언제라도 곧 다시 변화 전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순식간에 과거가 되어 버리듯, 지금 다음의 저 순간도 순식간에 현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굳이 학습자의 훗날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실용성의 논리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국어의 변화하는 성질로 치환되는 국어의 역사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울러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11) 이는 어찌 보면 A가 변화해서 B가 되었는가 혹은 A'가 되었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국어의 역사성, 즉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의 교육 내용으로는 후자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성에 대한 이 같은 문제의식은 특히 역사교육에서 보다 풍성하게 논의되어 왔다. 정덕희·정은해(2004: 145)에서는 지나간 역사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로 “우리의 미래적 존재 가능성이 바로 역사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김봉석(2010: 21)에서는 후설의 시간의식을 바탕으로 역사성이 과거-현재-미래의 상호관계 안에 존재하며 “생활세계의 현재는 단순한 정적인 형태인 현재가 아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성의 한 부분의 흐름으로서의 현재”임을 분명히 하였다. 방지원(2012: 249)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을 “사물의 변화를 과거에 한정시켜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변화의 양상을 참고해서 금후 또는 미래의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전망을 토대로 변화의 방향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문재경(2013) 등에서도 이들과 유사한 논의가 다루어진 바 있다. 역사 교과에서 ‘미래’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이유이자, 역사성의 한 구성 요소이며 나아가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일부로서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어사 교육에서도 유사하게 통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변화에 대한 연속선상에서는 미래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¹²⁾ 문면으로는 ‘내일, 미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서 국어의 미래는 국어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의 과거와 현재는 음운 및 어휘와 문법과 같은 언어 체계를 통해 살피면서 국어의 미래는 언어 사용자 수, 한류에 힘입은 한국어 교육의 확장 등 언어 위상을 통해 살피는 것은 언어의 변화를 인식하는 교육 내용이 미래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단절되게끔 만든다.

앞서 <표 1>을 보면 절반이 넘는 교과서에서 ‘국어의 어제와 오늘’에 한

12) 국어의 역사성 교육이 현재의 언어적 경험과 맺는 관계는 ‘과거가 변해서 현재가 되었다’와 ‘현재가 미래로 변해가고 있다’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 교과서들에는 후자가 빈곤하다는 것이다.

정된 단위명으로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 ‘미래, 발전’과 같은 키워드는 국어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별개의 단원을 표상하기 위해 활용되는데 <가, 라, 차>의 구성이 대표적이다. 어제 - 오늘 - 내일 혹은 과거 - 현재 - 미래로 표상되는 시간적 흐름이 국어사 교육 내에서 한뫼으로 포착되지 않고 분절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단위 명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 변화하는 국어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 국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알고 한국어의 발전 방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마/당

: 국어의 변화 탐구

다음 자료는 훈민정음 창제의 뜻을 밝힌 <세종어제훈민정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비교하며 국어의 변화 양상을 탐구해 봅시다.

1. <세종어제훈민정음>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며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④ 다음 구절들이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고, 조사의 형태나 쓰임이 현대 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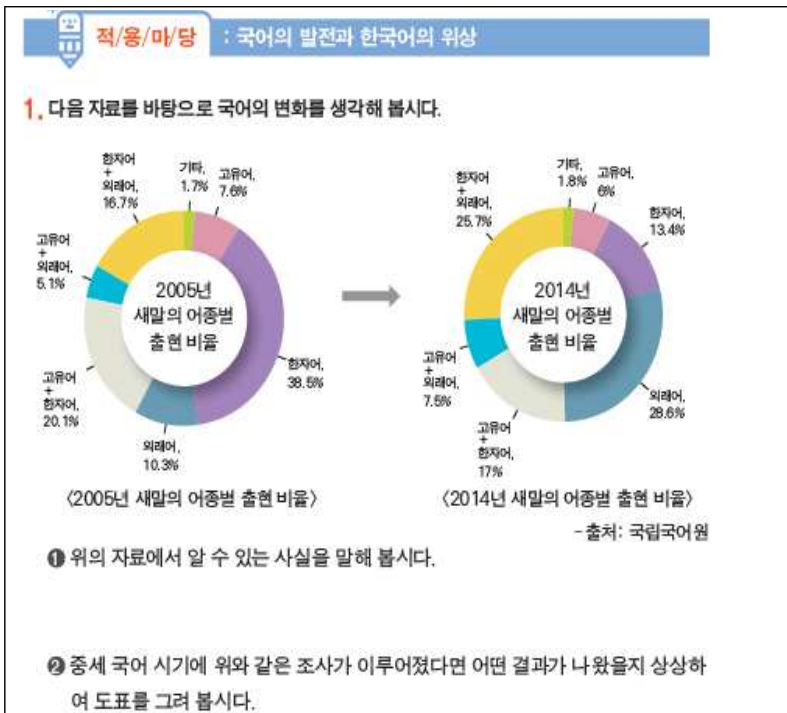
| 중세 국어 | 현대 국어 | 차이 |
|-------------|-------|---------------------------------|
| 나·랏·알·ㅅ·미 | | ()이/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됨. |
| 中·國·國·에·달·아 | | ()이/가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됨. |
| ·흠·배·이·셔·도 | | 모음 뒤에서 ()이/가 주격 조사로 사용됨. |

2. 다음을 명사와 조사로 분석해 보고, 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법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알아봅시다.

3. 다음을 참고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가 국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추리해 봅시다.

<그림 1>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례 1

예를 들어, <그림 1>은 <가> 교과서의 활동인데 여기에서는 ‘(1) 변화하는 국어’라는 소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국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을 알고 한국어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의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국어의 변화’와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을 병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전자의 주된 교육 내용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이다. 『훈민정음』 어저서문을 자료로 삼아 음운, 형태, 표기 등에서 중세 국어의 예와 그에 대응되는 현대 국어의 예를 제시한 후, “어두 자음군이 대체로 된소리로 바뀔”과 같이 변화의 결과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내용들은 ‘이해마당’으로 묶여 있고, 바로 뒤이어 다음 <그림 2>의 ‘적용마당’이 이어진다.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가) 한류 타고 한국어 교육 열풍



3. 다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해 봅시다.

- ① 한글의 창제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② 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점검표에 표시해 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 의견 | 동의 정도 |
|----------------------------------|---|
|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면 똑똑해 보인다. | <div>1 2 3 4 5</div> <div>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div> |
| 신조어나 유행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 <div>1 2 3 4 5</div> |
|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div>1 2 3 4 5</div> |
| 줄임말이나 통신 언어 등은 일상 언어를 풍부하게 해 준다. | <div>1 2 3 4 5</div> |
| 어법이나 맞춤법은 공식인 상황에서만 지키면 된다. | <div>1 2 3 4 5</div> |

〈그림 2〉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례 2

적용 마당에서는 2005년과 2014년 새말의 어종별 출현 비율을 비교하게 한 후, 중세 국어 시기에는 새말의 어종별 출현 비율이 어땠을지를 상상하게 하고 있다. 음운, 형태, 통사, 표기 등을 중점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이해마당’과 어종의 비율을 바탕으로 중세국어를 상상하게

하는 ‘적용마당’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 선행된 교육 내용이 후행될 교육 내용과 연계되는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뒤는 한류와 한국어 교육 열풍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위상을 제시한 후, “쉽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상의 교과서 구성의 논리를 요약해 보면 ‘국어는 변화한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다. 즉, 과거와의 비교나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국어생활의 미래를 숙고하는 데 반영될 여지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와 현재는 언어의 체계에서 살피고 미래는 언어의 위상에서 살피고 있으니 이 두 층위가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¹³⁾ 이러한 문제는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라는 성취 기준과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 기준을 엮어서 단원을 꾸린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¹⁴⁾


13) 국어의 역사성과 국어 사랑 및 발전에 대한 성취 기준이 연계되었을 뿐 별개의 것이므로 ‘미래의 언어’를 위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을 엮어 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앞서 <표 2>의 단원 도입 진술에서 “(국어가 걸어진 길, 오늘날 국어의 문법에 대한) 앎은 더 나아가 국어를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마음의 바탕을 이룬다”(〈가〉)라거나 “(과거의 말과 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마〉)라는 식의 진술은 분명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와 국어 사랑 및 발전 사이에 논리적 인과를 부여하고 있다. 또 앞서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실제 학습활동에서도 이들의 관계에 ‘이해-적용’의 위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언어 체계 및 위상 층위에서 과거-현재-미래가 혼동되고 있음은 분명 실재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14) <마>, <바>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3〉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국어의 과거-현재-미래

| | 과거 | 현재 | 미래 |
|--------|----|----|----|
| 국어의 체계 | ○ | ○ | |
| 국어의 위상 | | ○ | ○ |


다만 〈사, 차〉 2개 교과서가 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1
문법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자료들을 검토한 뒤,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1



〈순진〉

아이: (엄마 손을 남방 쪽으로 잡아끌며)
“어머니 일루 가치가”


- 『조선일보』(1934. 5. 28.)

(1) '자료 1'에서 아이가 한 말 중 밑줄 친 부분을 오늘날의 표기에 맞게 고쳐 써 보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인지 말해 보자.

오늘날의 표기

가이 가

'자료 1'의 표기에 반영된 음운 변동



2
말하기 쓰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국어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자.

1 단계

먼 미래에 국어의 모습이 어떨 것 같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
동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나의 예측

다른 모둠원들의 예측

〈그림 3〉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례 3

먼저 <사> 교과서는 “국어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라는 활동 제목 아래 언어 체계 층위에서 언어의 변화를 미래의 언어까지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 나타난 활동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대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언어와 현재 언어의 표기법을 비교한 후 역시나 아무 연결 지점 없이 바로 미래상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였을 때 교과서 개발진에서는 학습자들이 표기법상의 변화상을 예측하게끔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본 것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음운, 어휘, 문법, 표기 중 표기는 현재 명문화된 규정으로 사용 규칙을 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언어 체계 층위 내에서 국어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차> 교과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국어의 변화를 살펴보자.



(1) 이 대화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너무’의 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 보자.

(2) '너무'와 같이 뜻풀이가 바뀌거나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새롭게 올라간 사례를 더 찾아 보고, 이를 국어의 역사성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

2 다음은 오늘날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가** •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세요!
•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 나** • 손을 깨끗이 닦는[망는] 게 중요해.
• 너무 누르면 부러지게[뿌러지게] 마련이야.
• 온 집 안에 고소한[포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3) (가), (나)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그림 4〉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례 4

〈그림 4〉의 1번과 2번 활동에서는 어휘와 문법 그리고 음운에 이르기까지 언어 체계의 다양한 층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국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국어의 역사성 교육이 결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유의미한 교육적 장면이 아닐 수 없다.¹⁵⁾ 막연히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 과거가 될 현재가 다가올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과도기적 현상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대립되는 입

15) 박형우(2014)에서 다루는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화는 비슷한 궤에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

장을 간략히 보임으로써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잘 안내해 주고 있다.

4) 언어의 변화에 '바람직함'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가?

위 3)에서 다른 문제 중 일부는 다시 4)의 문제로 이어진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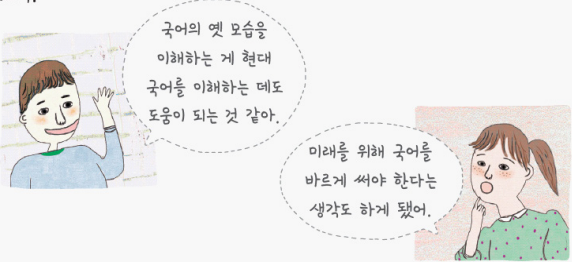
국어의 역사성 이해하기

①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말을 배우는 아이들은 너무나없이 훌륭한 언어학자다. '햇곡식', '햇사과' 등의 말을 익히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은 '곡식', '사과'란 말이 따로 있으니 '햇'을 분리하여 그 뜻과 용법을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 그리고 '올해 수확한 벼를 썰어 나온 쌀'을 아이는 당연하게 '햇쌀'이라고 이른다. 그런데 틀렸다. 어른들은 가차 없이 붉은 색연필로 빗금을 긋고는 '햏쌀'이라고 가르친다. 억울한 아이는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그래!"가 전부다.

(1) '햏쌀'이라는 단어를 《우리말샘》에서 찾아보고, 표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자.

(2) 국어 생활을 할 때, 국어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3

현대 국어에서 국어가 변화하는 모습 탐구하기

① 다음 기사를 읽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어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언어는 역사성을 가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새로운 생각이나 기술, 기기가 생기면 새말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 관습이나 문화가 변하면 쓰이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백 개의 신어(新語)가 생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유행에 따라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단어가 있거나 하면 꾸준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전에 등재되는 단어도 있다.

- 〈뉴시스〉2015년 10월 17일 자 기사

〈그림 5〉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례 5

예를 들어 <다>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역사성 이해하기’라는 목표 아래 놓인 학습활동에서 ‘햇곡식, 햇사과’와 달리 ‘햇쌀’이 아닌 ‘햅쌀’이 쓰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쌀’이 본래 ‘쌀’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는 글을 제시한다. 이후 해당 글을 읽고 “국어 생활을 할 때, 국어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게끔 한다. 이때 함께 제시된 삽화에서 한 학생은 국어의 역사를 아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미래를 위해 국어를 바르게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 국어를 바르게 써야 한다’라는 명제는 얼핏 당위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햅쌀’이 ‘쌀’로부터 왔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해당 당위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남는다.¹⁶⁾ 언어의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개입한다. 그런데 이 변화를 ‘언어의 발전’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가?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다르고 나름의 논리 및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그 둘 사이의 우열을 가름할 수 없는 것처럼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도 유사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쌀’이 ‘햅’로 변한 데에는 ‘발전’이나 ‘바람직함’이라는 가치를 개입시킬 수 없는 것이다.¹⁷⁾

그럼에도 위 <그림 5>에서 보이는 것과 교육 내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와 국어를 사랑하는 태도를 연결시키기 위해 ‘역사’ 및 ‘변화’와 ‘미래’ 및 ‘발전’, 그리고 ‘바람직함’이라는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엮어 국어의 역사성 이해에 대한 난맥상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와 국어를 사랑하는 태도는 각각이 나름의 교

16) 햅쌀의 어원 논의의 교육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이 과거 언어와 현재 언어가 연결되는 지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예임은 분명하다.

17) 물론 언어의 변화에 바람직함이라는 가치의 개입 여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언어적 경제성을 위한 노력이나 표현의 풍부함을 위한 노력으로 언어가 변화하기도 하며 여기에는 발전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언어 변화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교과서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로 보이고 있는 음운이나 표기, 형태 및 통사의 변화에서는 이러한 바람직함과 바람직하지 않음을 나누기가 어렵다.

육적 가치를 지니므로 이들을 꼭 무리하게 엮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혹은 이 둘 사이의 연결 고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다수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들은 이 ‘바람직함’을 외래어, 신조어 사용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세종어제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자.

- (1) (가)의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변화에 해당하는 설명을 (나)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 (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음 단어들이 각각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야기해 보자.
- (3) 밑줄 친 부분을 현대 국어로 바꾸고 조사의 변화를 말해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 보자.

신조어란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로, 사회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척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 관련 신조어가 꾸준히 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조기’(조기 퇴직), ‘명태’(명예퇴직)를 들 수 있다. 지난 몇 년간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0대 절반이 실업 상태라는 뜻의 ‘삼태백’,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는 20대를 일컫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등의 신조어가 잇따라 등장했다.

〈중략〉

신조어는 언어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대, 계층 간 소통 단절을 초래하는 역기능 문제도 끊임 없이 제기된다. 특히 외래어 조어가 급증하는 데 따른 반감이 크다. 매년 국립국어원이 조사·발표하는 신조어를 보면 새로 만든 것보다 틀 이상의 단어를 조합한 것이 많다. 이 중 외래어가 포함된 말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래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단어 자체로는 뜻을 알 수 없는 외래어 조어는 혼란스럽다.

- (1) 이 글을 참고하여 국어가 변화하는 원인을 이야기해 보자.
- (2) 다음을 참고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줄임말이나 신조어 가운데 세 개를 골라 제시된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말샘’에 올려 보자.

〈그림 6〉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실례 6

위 내용은 <가> 교과서의 것인데 여러 교과서에서 유사한 학습 내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 구성의 문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언어 체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게끔 하고서는 변화의 원인은 다시 시대상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앞서 살핀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화한 것이나 ‘빙’이 쓰이지 않게 된 사실 등은 시대상의 변화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닌 만큼 이들은 동일 단위 내에서도 다른 층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후자의 변화에서는 갑자기 바람직한 변화 혹은 발전하는 변화의 가치가 개입하니 교육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IV.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방향

III장의 교과서 검토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관찰 및 비교가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이다’라는 국어의 역사성 이해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어의 체계와 국어의 위상의 층위가 구분되지 않은 채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점이나 현대 국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예시가 ‘헹쌀’ 등으로 한정적인 점, 국어의 체계 변화와 바람직한 국어생활의 부적절한 연결 등을 들 수 있다. IV장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과거를 현재 및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교육 내용 마련의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상당수는 아래 <표 4>와 같이 단원의 도입부에서 학습자가 과거의 언어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중세 시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와 같이 단순하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이때 많은 교과서들이 역사 드라마 즉 사극으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표 4〉 국어의 역사성 단원의 동기 유발

| | |
|---|---|
| 가 | 우리는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를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일부 단어들을 제외하면 드라마에서 쓰이는 말이 오늘날의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 만약 우리가 16세기로 가게 된다면, 위 편지에서처럼 음운이나 단어, 문법, 표기법 등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국어와 다른 모습을 지닌 국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 다 | 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극을 즐겨 보곤 해. 요즘은 장영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극을 보고 있어. 촉우기 같은 발명품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더라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장영실을 만난다면 직접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조선 시대로 가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
| 라 | 옛날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 사 | 주로 한글로 써어 있기는 하나 읽기조차 어려운 글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부모님과 대화 중에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해 보자. |
| 아 | 이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만난다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
| 차 |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 당시 사람들과 서로 말이 통할지 생각해 보자. |

일반적으로 국어사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이 『소학언해』나 『월인석보』, 『삼강행실도』 등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에 학습자들의 심리에 표상되어 있는 과거의 언어는 곧 역사 드라마 속 언어일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접근은 유의미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언중의 의식에 대한 간단한 검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in>에서 ‘조선시대 의사소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의 일부이다. 검색의 정확도가 높은 순서로 100건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아래에 보이듯이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과거의 언어는 현재의 언어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한 질문이 27건 검색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이 충분히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임을 보이는 것이다.

Q 조선시대에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나요?? 2014.07.25,

조선시대에는 말로 의사소통할때 어떻게 의사소통했나요 ?

A 조선시대의 의사소통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간의 국문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유추는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삼국...

Q 조선시대사람과 의사소통가능할까요? 2011.10.09,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로 간다면 그시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될까요? 사극같은거 보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훈민정음 나왔을때부터 통역에 다라...

A 적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고전시가나 시조를 보면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정도 한자를 알고 있다면 대화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을...

Q 지금 쓰는 말로 조선시대 어느 시대 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할지요?? 2005.01.21,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요.. 은어 막 이런거 말고 표준말로는 조선시대??? 어느때 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까요??

A 근, 현대요 조선시대때 말은 약간 통했지만 글은 안통함..

Q 조선 시대 사람과 현대인이 만나면 말이 통할까요? 2003.05.28,

한글이 세종대왕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 현대인이 고려나 조선 즉, 한글이 창제되기 전의 사람과만 나면 말이 통할까요??

A 아마 조선시대 사람과의 의사소통보다도 더 어렵겠죠.. 예를들면 삼국시대엔..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언어가 제법 차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같은 언어긴 하지만 현재...

〈그림 7〉 ‘조선시대 의사소통’의 검색 결과 중 일부

〈그림 7〉의 질문과 답변들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언중들이 과거의 언어를 추측해 보거나 상상해 보게 되는 경로가 주로 드라마나 영화라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드라마와 영화를 통틀어 사극이라는 특정 장르에서 쓰이는 언어 양상에 대해 특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중은 과거의 언어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네이버 지식in〉에서 ‘조선시대 말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결과 언중이 인식하고 있는 과거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

Q 조선 시대 말투로 바꿔주세요 2019.05.29,

발해 유민들을 포섭하여 민족 통합을 이루겠습니다.세금을 감면하고 빈민을 구제 함으로서 민생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막 써서 뒤죽박죽이지만, 조선시대 말투로 바꿔주세요..

A 조선시대 말투라 하여 별개 있겠소? 내용을 보아하니 태조 왕건에 대한 것 같은데... "자손들을 귀감으로 삼기 위해 불교를 숭상하고, 도참설을 중시하며, 거란을 배격하는..."

Q 조선시대 말투 좀 도와주세요 2019.07.18,

소설 준비 중인데 고백 대사를 어떻게 쓸까요 좋아한다고 그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좋아합니다 라고 말 하나요? 사극 풍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A 너를 은애한다... 단지 그뿐이다. 크으~ 조선시대에는 "연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한다 의 옛날식 표현입니다

Q **조선시대 왕 / 왕후 말투** 2019.02.10.

제가 **조선시대** 소설을 쓰고있는데 두근거린다 / 설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싶어요... 질문해요 ! 왕미랑 왕후가 대화할때 쓰는 **말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마음이 심히 통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Q **조선시대 말투** 2010.10.07.

조선시대의 대한 소설을쓰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대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과 왕족들이 쓰던 **말투**좀 써주세요

A 음...**조선시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요?**조선시대** 사람들과 왕족들이 쓰던 **말투**같은 걸 알려면 사극 같은 걸 보면 많이 배울수 있습니다.웃차림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그림 8〉 ‘조선시대 말투’의 검색 결과 중 일부

역시 정확도 순으로 나열하여 100건의 질문 및 답변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질문보다는 답변에 초점을 맞추었다.¹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중의 의식에 자리한 과거의 언어에 대한 특징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짐, 과인’과 같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중세 시대에만 존재하는 어휘나 ‘원네’와 같이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에 대해 과거의 언어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혹은 ‘ 좋아하다’를 ‘연모하다, 은애하다’로 바꾸거나 ‘설레다’를 ‘마음이 동하다’로 표현하는 등 한자어를 과거 언어의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이 보였다.

특기할 만한 지점은 상당히 많은 답변에서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양반이나 선비의 말투’이거나 ‘조선시대 말투’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또한 ‘-사옵-’이나 ‘-옵-’, ‘-나이다’와 같은 높임 표현의 결합형을 조선시대 말투의 특징일 것으로 짐작하는 답변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특히 높임 표현이 언중이 과거의 언어를 상상하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뜻풀이에 “(에스러운 표현으로)”라는 의미를 첨언하고 있는 표제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18) 대체로 소설을 쓸 목적이나 단순 호기심 등으로 조선시대의 말투를 궁금해하고 있었으며, 질문 내용은 막연하게 조선시대 말투를 알려 달라는 질문과 왕의 말투나 시녀의 말투는 어땠는지와 같이 발화자 특성을 정하는 경우, 혹은 현대어를 제시하고 이를 조선시대 말투로 바꾸어 달라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

는 ‘-나이다, -나이까, -더나이까, -사오이다, -사옵니까’ 등 중세 국어에서 별개 선어말 어미로 존재했던 ‘-이-’와 ‘-습-’의 흔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도 예스러운 말투, 의고체로 느끼게 하는 데에 이들 표현이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언중의 심리에 자리한 과거의 언어는 실재의 중세 국어가 아니므로 이는 어찌면 오개념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자가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시기의 언어를 접하는 데 있어 느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언중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거의 언어에 대한 인상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 등에 활용하기에 좋은 소재임은 분명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언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이 국어의 역사성을 살피기에 적합한 요소라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높임 표현이 국어의 역사성 이해 교육에서 중점을 차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점이 더 있다. 먼저 높임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습-’이 ‘-사옵-’으로 변화한 것은 객체 높임에서 상대 높임으로의 기능 변화가 여전히 높임 표현이라는 상위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친연성을 느끼기 쉽게 한다. 즉 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A→A’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높임 표현은 본 연구의 핵심 문제였던 현재와 미래의 언어를 연결하여 논의하기에 좋은 소재이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주체 높임의 기능을 담당했던 ‘-시-’가 상대 높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하여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양상을 과거-현재-미래를 아울러 제시해 줄 수 있다.¹⁹⁾ 특히 ‘-시-’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옳지 않은 사용인지 혹은 자연스러운 사용인지를 두고 이견이

19) 그 외에도 높임 표현은 압존법 사용의 감소나 ‘한다요체’, ‘음슴체’ 등 다양한 역사적 변화가 쟁점시되고 있는 언어 자원 중 하나이다.

많다. 이에 대해 토론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의 국어생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일 수 있게 되기도 한다.²⁰⁾

또한 ‘-시-’의 의미역 변화 문제는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 역시 국어 교육적으로 의미미하다. 점차 존대에 대한 문화가 희미해지는 와중에 구매 장면이라는 특정 사용역을 중심으로 ‘-시-’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현상은 말로만 ‘사회나 시대상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를 촉진하다’라고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으로 설득력 있다.²¹⁾ 또한 단순히 명제로만 한국어에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 시간 국어가 변화해 오는 와중에도 국어 사용자들은 높임을 표시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높임 표현 자체의 교육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국어의 역사성 교육의 학습 활동을 꾸려 볼 수 있다. 먼저 도입에서는 기존 여러 교과서들과 유사하게 “조선 시대 사람과 말이 통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학습자들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 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장 먼저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 체계에 대해 보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한 예문을 활용하여 한 문장 안에 주체와 객체 그리고 청자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어미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지금은 없

20) 사실 상대를 높이는 ‘-시-’의 경우 현재 문법 요소 단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에 걸쳐 있는 이들을 국어사 교육으로 가져오는 것은 국어사 교육이 다른 문법교육 내용과의 연계성을 더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

21) 국어의 변화는 음운이나 형태, 어휘 등에도 걸쳐 있다. 이런 점에서 언중이 ‘틀리다’를 ‘다르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양상이나, ‘발에서’의 음가가 달라지는 모습 등 다양한 국어의 변화상을 다뤄 볼 수 있다. 흔히 학술적으로 이견이 없는,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만이 교육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학술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규정하지 못하는 과도기의 과정에 있는 언어 표현들이 이러한 점에서는 교육적으로 더 유의미할 수도 있다.

어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재에도 흔적이 남아 있음을 통해 한국어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단순히 A→B가 아닌 A→A'임을 인식할 수 있다.

阿難이 다시 슬보되 大愛道ㅣ 善흔 쁘디 하시며 부테 처섬 나거시닐 손소 기르
스 븡시니이다 <월인석보 10:19a>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예문의 비교를 통해 현대 국어에 남은 중세 국어의 흔적을 느껴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사극의 한 장면을 간단히 보여 줄 수도 있다. 사극 한 편을 보고 옛 시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혹은 초점화를 위해 ‘하오체’나 ‘-사옵-’이 들어간 표현과 이를 제거한 표현 간의 대조를 보일 수도 있다. 단순히 A와 B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A의 흔적이 A'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통해 진정 이들에 대한 범시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ㄱ. 철수가 집에 갑니다.
- ㄴ. 철수가 집에 가옵니다.
- ㄷ. 철수가 집에 가나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변화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시-’의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볼 수 있다. ‘-시-’ 문제가 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방향성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해 비록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의 언어는 현재의 언어에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변화 역시 현재 언어의 여러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국어사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어의 역사성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좋은 언어(국어) 교육의 요건 중 하나는 실제 학습자, 나아가 언중이 체험하는 언어 현상에 대해 풍부한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Matthiessen, 2006: 31). 국어사 교육의 가치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임을 믿는다. 앞으로도 보다 풍부한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²²⁾

* 본 논문은 2019.8.10. 투고되었으며, 2019.8.12. 심사가 시작되어 2019.9.12. 심사가 종료되었음.

22) IV장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 중 ‘-습-’의 변화를 충실히 다루기 위해서는 근대 국어를 다룰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II장과 III장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사이에 놓인 근대 국어의 문제에 대해 심층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심사위원 분들의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두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지면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논하지 못하였다. 죄송한 마음을 표함과 함께 해당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형진·김찬기·김유범·민준홍·신현암·고영호·김부연·김영은(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동아출판.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김규훈·김효연(2016), 「국어사 교육의 인식 교육적 함의」,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2), 185-214.
- 김봉석(2010),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한 초등 역사교육의 방향성 모색」, 『사회과교육』 49(4), 17-32.
- 김유범(2013),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연구』 16, 63-96.
- 김홍규(2002),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류수열·송경석·박건호·권순정·김효정·임호원·김소현·김지상·강문식·강지영·김용현(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금성출판사.
- 문재경(2013),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과 역사 지식 형성의 연관성 탐색」, 『역사교육연구』 18, 283-320.
- 민현식·유성호·이은희·민병곤·김혜정·박기범·박재현·서명희·홍근희·김철희·김형수·이지은·정글(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좋은책신사고.
- 박안수·임승분·안병만·이남희·강정한·강호영·김중수·신승은·이규연·이석중·이성수·이영발(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비상교육.
- 박영목·정호웅·천경록·양기식·전은주·조선희·김수학·박의용·서우중·이세영·이혜진·하고운(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천재교육.
- 박영민·박형우·김지영·박경희·김기열·김영민·정미경·조성만(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비상교육.
- 박형우(2014), 「문법화에 기반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50, 131-162.
- 방지원(2012), 「역사교육에서 역사식 연구의 추이와 전망」, 『역사교육연구』 16, 241-282.
- 석주연(2013),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 현황과 방향성 탐색 : 근대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6, 97-124.
- 신유식·이필규·박종석·전경원·전여경·윤인희·이호승·최희윤·호지은·황재진(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미래엔.
- 양영희(2016),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국어교육학연구』 51(4), 155-179.
- 양영희(2018), 「고등학교 국어사 교육의 방향 설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605-620.
- 이규범(201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교육 내용과 자료 분석」, 『한말연구』 51, 161-184.

- 이동석(2014),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283-329.
- 이동석(2019),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국어사연구』 28, 159-200.
- 이삼형·김창원·정재찬·최홍원·간호익·조형주·안혁·남궁민(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지학사.
- 이성영·염은열·김태석·김유미·남가영·김에스터(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천재교육.
- 이승희(2015), 「어문 규범 교육과 연계한 국어사 교육 연구—고등학교 “국어 2”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9, 71-93.
- 정덕희·정은혜(2004), 「하이데거의 역사성과 역사교육」, 『철학사상』 18, 135-159.
- 정민·노철·강석준·권택경·김민혁·김형진·김형태·나종업·문성후·박경원·박기려·박길제·박두일·박영수·박정준·박현진·서형오·신흥규·오금희·우보영·유미·이봉형·이찬교·장소연·정호식·한성찬·현중권(2018), 『고등학교 국어』, 파주: 해냄에듀.
- 주세형(2005),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2, 325-354.
- 최소영(2018ㄱ), 「범시적 관점의 문법 교육 탐색」, 『국어교육연구』 42, 201-230.
- 최소영(2018ㄴ),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텍스트 구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665-689.
- 최원식·박종호·고화정·곽기영·구자황·박수연·박종오·송영민·송찬욱·심인영·안세봉·오세호·이삼남·이종호·이현수·임요한·정수임·정지영·최윤영·최형용(2018), 『고등학교 국어』, 서울: 창비.
- 허재영(2016), 「국어사 교육의 변천과 발전 방향—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선정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27, 263-293.
- Matthiessen, C. M. I. M. (2006), “Educating for advanced foreign language capacities: Exploring the meaning-making resources of languages systemic-functionally” In Byrnes H. (Ed.), *Advanced language learning: The contribution of Halliday and Vygotsky*, London: Continuum.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어사 교육의 방향성 탐색 —국어의 역사성 교육을 중심으로

신희성

최근 국어사 교육은 학습자 중심성을 수용하여 학습자가 과거의 언어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의 성취 기준에서 국어의 변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는 데 방점을 두는 식의 변화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교수·학습 내용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채 해당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는 국어의 역사성 교육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언어 체계 내에서 아우르지 못하고 국어의 위상 층위와 혼동하여 교육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어사적 지식이 현대 국어와 관련되는 지점에 대한 풍부한 예시를 보이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지식이 미래의 언어를 결정짓는 방향도 보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중이 과거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을 중점 삼아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국어의 역사성 교육 내용 마련의 가능성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국어사 교육, 국어의 역사성, 높임 표현, 문법교육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n Changing Nature of Korean Language

Shin Heeseong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was revised in 2015 to allow for a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 so that the students of Korean language history can narrow down their historical distance. In the revised curriculum, the achievement criteria focus on understanding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language. However,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has not been revised in a manner that would have been essential for supporting the new approach of teaching and differentiating it from the conventional one. Thus, the requirements of the achievement criteria has been left unaddressed.

One of the issues that emerged was related to the process of elucidat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Korean language system—it links the past and the present to the levels of the language rather than encompas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ithin the language system itself. It is necessary that we present enriching examples that can help the students in relating their knowledge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to that of modern Korean language. Furthermore, the way in which gaining such knowledge can influence Korean language in the future also needs to be evaluated. In light of this, our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such an education system for teaching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that can encompas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emphasize the enhanced usage of expressions.

KEYWORDS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 Honorific Expression, Grammar Education